



책을 많이 읽는 것으로 유명한 프랑스인들. 혹시 고도로 발달한 프랑스적 개인주의가 이들로 하여금 책에 관한 일을 가두게 하는 것은 아닐까? 고령에도 불구하고 삼수년 전부터 문학도들에게 '영혼의 약속장소'가 되었던 소르본느 대학 앞 서점 PUF가 문을 닫는다는 사실은 프랑스도 '문자문화 위기'를 피해갈 수 없음을 말해준다.

지하철 독서열기, 개인주의가 낳은 책으로의 망명?

정보 과다 인한 '데모크라튀르' 우려도

글_ 박철화(중앙대 예술대학 교수)

이번 호부터 3차례에 걸쳐 중앙대 박철화 교수의 파리 기행을 연재합니다. 박 교수는 지난달 프랑스인 특유의 독서풍토와 서점문화를 현지에서 르포리시해 <출판저널>에 보내왔습니다. 이 글에서 밀착, 묘사된 파리와 파리 사람들의 문화적 표정은 우리의 그것과 대비, 여러 가지로 흥미해볼 만한 대목이 많습니다. 필자 사정에 따라 연재 횟수가 조정될 수도 있습니다.<편집자 주>



방학을 이용하여 5년 만에 파리를 찾았다. 주된 목적은, 교육부에서 지원하는 '공연영상 융합교육' 프로그램의 하나인 '감각/감수성/상상력' 프로젝트의 참고자료를 찾기 위해서였다. 인간은 감각과 사유를 통하여 세계를 받아들이고, 또 세계를 표현한다. 그런데 '생각하는 인간'의 중요성은 빠지지 않고 강조되는 반면에, 감각의 주체로서 '느끼는 인간'에 대한 이해는 소홀히 한다. 이 불균형이 예술에 대한 기본적인 알기와 즐거움을 어렵게 만든다. 예술은 무엇보다도 먼저 '의미의 감각적 구체화(Embodied Meaning)'인데, 감각의 미적 가능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눈으로, 귀로, 피부로 통해, 또 코와 입으로 세계를 느끼고 즐기는 것, 그게 예술의

시작이 아닐 것인가. 따라서 예술교육은 인간의 기본 감각과 섬세한 감수성에 대한 이해, 그리고 그를 통한 자유로운 상상력의 확장으로부터 출발한다고 볼 수 있다. 존재를 유혹하는 이 감각의 박물학이 빠진다면 예술에서 기쁨을 누리기가 어려울 것이다. 물론 예술이 꼭 즐거워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즐겁지 않다면 또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그것은 책도 마찬가지다. 우리는 세상을 알아야 한다는 강박 속에서 지나치게 무겁게 책을 읽는다. 너무나 오래도록 책에 진리가 있다고 배웠기 때문이다. 하지만 진리가 책에만 있을까. 또 책에 진리만 있을까. 내 책장에는 읽지는 않았지만 예뻐서, 멋있어서 갖고 있는 책도 꽤 있다. 모양과 디자인을 즐기고, 손에 전해지는 종이의 질감을 느끼며, 한 장 한 장 넘어가는 사그락 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는 없을까. 사실 나는 번다한 서울을 떠나 이주 한가하게 책을 뒤적이며 며칠 동안의 무중력 상태를 경험하고 싶었다. 온 신경을 집중하지 않으면 알아들을 수 없는 외국어의 따듯한 고독 속에서, 그만큼 나는 새로 시작한 학교생활에 지쳐 있었고, 언어가 갖는 '의미의 감옥'에 숨막혀하고 있었던 모양이다.

공항서 '디카 분실, '모국어와 단절 기회'...차라리 잘된 일'

공항에서 파리로 들어가는 고속전철에서 디지털 카메라가 들어있

는 가방을 잃어버렸다. 그 안에는 내가 가지고 간 유일한 우리말 책, 소설가 조용호의 《왈릴리 고양이 나무》(민음사)도 들어 있었다. 눈앞이 캄캄했다. 어디선가 울고 있을 내 가방! 다시 공항으로 돌아가 분실물 신고를 하고는, 맥이 풀린 나머지 카페에 앉아 커피를 마셨다. 그리고는 나를 설득했다. 그래, 차라리 잘 되었어. 모국어와 단절되어 훨씬 홀가분해진 것이다. 비싼 카메라가 아깝기도 했고, 돌아가서 그 책을 다시 사야한다는 번거로움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어쩔 것인가. 거기에 매달리다 보면 아무 것도 얻을 수가 없을 터이니. 호텔에 가서 체크인을 하기 전에 이 기억은 잊어버리자. 나는 다시 파리 시내로 들어갔다. 그제서야 프랑스적인 삶의 풍경이 눈에 들어온다.

우선 프랑스인들이 책을 많이 읽는다는 사실은 분명하다. 카페, 공원에서, 그리고 지하철에서 책을 읽는 사람의 풍경은 너무 많아서 마치 의례 그러해야 하는 것처럼 자연스럽다. 어릴 때부터 읽고 받아 적는 '딕테' 시험에 익숙해서인가, 아니면 바칼로레아의 철학 논술 덕분일까, 혹은 말을 잘 해야 살아남는 살롱 전통의 토론문화 때문인가? 게다가 흔들리는 전철 안에서 코딱지만한 활자의 문고본에 얼굴을 파묻고 있는 모습이라니. 아무리 타이포그래피가 발달하며 활자가 아름답고 인쇄된 글자가 눈에 쏙쏙 들어온다 할지라도 말이다. 나로서는 점점 심해지는 난시 때문에 흔들리는 차 안에서 책을 읽지 않은 지 꽤 되었는데, 아니면 혹시 고도로 발달한 프랑스적 개인주의가 이들로 하여금 책에 존재를 가두게 하는 것은 아닐까? 책으로의 망명, 혹은 문자로의 유폐. 가방을 잃어버린 충격 때문에 이런저런 잡념이 마구 솟아나는 것이 아닌가 싶어 고개를 휘휘 저으며 나는 파리 북역北驛에서 일어섰다.

책값 비싸, 5퍼센트 할인, 매우 파격적 일'

물론 그런 생각이 꼭 틀린 잡념만은 아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딱 들어맞는 생각도 아닌 것이, 사실 이들에게 서점과 독서는 일상 속에 스며들어 있는 문화다. 그 점은 잃어버린 가방을 찾으러 파리 경찰청의 분실물 센터에 가면서 확인하게 되었다. 13번 전철의 쿵방시용역을 나와서 15구의 거리를 지나다 서점을 하나 발견했는데, 거기서는 마침 한 한국인 사진가의 작품을 전시하고 있었다. 제목은 '한강 풍경'. 조용한 주택가의 한 서점에 사람들은 책을 사러 들러서는, 거기서 먼 나라의 낯선 풍경을 보다가, 주인과 담소를 나누고는 서점을 나선다. 이게 프랑스적인 삶인 것이다. 우리의 교보문고나 마천가지인 시내 대형서점 프낙FNAC에 비해서는 할인도 없고, 문구점도 없고, 음반판매점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말이다.

사실 프랑스의 책값은 우리와 비교하여 꽤나 비싸서 5퍼센트의 할인 금액은 적은 게 아니다. 하지만 이런 동네서점에는 돈으로 바꿀 수 없는 조용함과, 단골과 주인 사이의 친근함, 거기에 덧붙여 소규모 전시회나 시인들의 낭송 모임, 또 이런저런 저자와의 만남과 같은 문화적 아우라가 있다. 그것이 프랑스의 독서 문화를 가능케 하는 힘이다. 예기치 않은 한국인 사진가의 전시에

기분이 좋아서 돌아오는 길에 다시 서점에 들러 몇 권의 책을 샀다. 19세기 소설가이자 미학 이론가 샹플리의 《고양이》, 조각가로탱의 《예술론》 대담집, 파블로 네루다가 스리랑카와 싱가포르 등지의 영사를 지내던 시절을 회고하며 쓴 《휘황한 고독》 등이다. 나는 이 책을 들고 부슬비가 창유리에 묻어 흘러내리는 카페에 앉아 진한 향의 에스프레소를 더블로 마시며 오후를 다 보냈다. 역 앞 작은 광장의 건너편에는 우리의 복합 영화관 같은 '고몽 Gaumont' 영화관이 있었다.

프랑스도 '문자문화 위기' 목소리, 소르본느 상징 PUF서점 문닫아

프랑스에서도 문자문화의 위기에 대한 이야기는 꾸준히 나온다. 대표적인 것으로 소르본느 대학 앞의 상징적 존재였던 서점 PUF가 문을 닫는다. 라틴 쿼터의 교통 요지에 자리 잡은 이 서점은 대학 아래쪽의 '라 콩파니'와 더불어 그야말로 프랑스 인문학의 영광을 대변하던 곳이었다. 여기서 새로 책을 사들고는 멀지 않은 뤽상부르 공원의 벤치에 앉아 바게트를 뜯어먹으며 그 책을 읽을 때 얼마나 황홀했는가! 나는 스물일곱의 청년이었고, 세상은 아름다웠다. 출판사의 이름이기도 한 이 서점은 나만이 아니라 십수 년 전의 내 세대에게는 일종의 '영혼의 약속장소'나 마찬가지였던 것이다. 관광객으로 들끓는 그 거리에서 PUF는 오연한 프랑스 출판문화의 얼굴이었다. 나와 같은 먹물에게 이 서점이 사라진 자리가 얼마나 쓸쓸할 것인가?

그때 문득 떠오른 단어가 '데모크라튀르'였다. 민주주의를 뜻하는 데모크라시와 독재를 의미하는 디타튀르를 합성하여 만든 말. 존재와 삶과 세계에 대한 성찰은 사라지고, 대중적인 마취만이 남은 오늘날의 문화, 특히 텔레비전에 대한 신랄한 야유를 담고 있는 게 바로 데모크라튀르였다. 프랑스에서도 텔레비전의 상업화, 인터넷으로 인한 과다 정보에의 노출은 심각한 당면문제였다. 조용한 개인적 성찰은 점점 사라지고, 대중의 집단적 열광이 그 자리를 대신하는 게 우리시대의 보편적 풍경인 것이다. 그렇다면 이 미디어의 문화가 결국 21세기 문명의 주인공이 될 것인가? 또 이런 문화가 내가 이해하는 예술의 감각적 즐거움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감각적 즐거움은 데모크라튀르의 한 현상인가, 아니면 사유의 즐거움으로 가는 디딤돌인가? 나는 이런 의문부호를 달고 파리의 서점을 돌아다녔다.

(다음호에 계속)

●이 글을 쓴 박침화는

문학평론가로 서울대 불문과를 졸업했으며 파리8대학 석사과정을 졸업한 후 현재 중앙대 예술대학 교수로 재직중이다. 저서로는 《관계의 언어》, 《우리문학에 대한 질문》, 《문학적 지성》 등이 있다.